

미국 금리인상 국내 영향은

회복세 수출 ‘찬물’…1300조 가계부채 비상

① 수출 악재

미국이 14일(현지시간)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최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국 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신흥국 경기침체, 달러화 강세, 유가 하락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對)신흥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유가와 신흥국 경기에 민감한 석유화학,

신흥국 침체·유가하락 유발…석화·자동차·철강 타격

자동차, 철강 등의 업종이 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됐기 때문에 영향이 단기 간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내년에도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인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은 이날 내년 금리 인상이 3차

레 정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월의 2차례 전랑보다 늘어난 것이다.

반면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 장기적으로 미국 수출 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환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환변동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역협회 김경훈 수석연구원은 “이번 연준 발표를 보면 시장 예상보다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신흥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더 커질 수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에도 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② 가계 빚 우려

미국이 15일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폭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애초 전망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가계부채 관리가 더 시급해졌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295조 7531억원이다. 1년 새 130조원 이상 늘어났다. 지난 10월과 11월 은행권 가계

대출금리 1%P 오르면 年 부담 7~8조원 늘어

대출이 각각 7조5000억원과 8조8000억원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이미 1300조원을 넘었다. 저금리 상황에서 폭증한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빚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비중(올해 9월 기준)이 41%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00조~800조원은 금리 변동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형으로 추정된다. 대출금리

가 1%포인트 올라가면 가계가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연간 7조~8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악한 고리’인 고령층·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013~2015년 3년간 연평균 8.2% 증가했으나 올해 증가율은 13%대(상반기 기준)로 뛰었다.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생활자금 대출 수요가 많아져서다. 빚이 많아진 상황에서 금리 상승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취약계층 다중채무자부터 집단으로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가계부채의 총량 자체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한계가구의 사립자금이나 생계자금용 대출이 늘어난 것이 문제”라며 “소득·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 개인 투자가이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움직이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반응 등으로 재테크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급과잉과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 등으로 그간 주목받았던 부동산 시장이 시들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에 연동되는 펀드나 주식 등을 주로 추천했다. 안전자산이면서 최근 가격이 많이 하락한 금을 추천한 PB도 있었다.

윤석민 PB는 “상품들의 경우 미국 금리에 연동되는 펀드들, 예컨대 국고채 금리가 반토막만 안 나면 3.5% 정도 수익을 주는 DLS(파생결합증권) 상품이나, 금리 연동 채권 상품, 그리고 금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은 안전자산이어서 금리 인상 등 변동기에 유망하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지긴 어려울 것 같다. 실물로 사면 부가세가 있어서 증여를 생

각하지 않는 이상 통장으로 거래하는 상품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양재혁 PB팀장은 “요즘 같은 저성장기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나라는 아마 미국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달러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걸 추천한다”며 “하이일드 채권, 뱅크론 펀드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ELS(주가연계증

권) 상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ELS(주가연계펀드)의 안정성도 높아졌다. 연말을 맞아 배당주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동일 센터장은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짤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서 금리를 지속해서 올리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며 “일단 6개월 동안 짧은 거 위주로 운용하다가 금리 인상 추이를 보면서 장기채권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36.65 (-0.22) ↑ 금리 (국고채 3년) 1.70% (+0.05)

↑ 코스닥 620.61 (+8.14) ↑ 한울 (USD) 1178.50원 (+8.80)

기업들 1000원어치 팔아 57원 벌었다

매출 증가율 13년만에 최저…수익성은 지난해와 비슷

올해 3분기에도 국내 기업들이 매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6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 7~9월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은 작년 3분기보다 4.8% 줄었다. 한은은 국내 외부감사 대상 법인 3062곳을 표본조사했고 조사대상 기업 중 84%가 응답했다.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2014년 2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매출액 증가율은 2003년 3분기(-6.3%)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다.

한은은 2014년까지 분기별 기업경영분석에서 상장기업만 조사하다가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기준을 바꿨다. 한은은 3분기 기업의 매출액 급감 배경으로

자유가 장기화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 사태 등을 꼽았다.

제조업 매출액이 6.1% 급감했고 비제조업은 2.9% 줄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가 10.2%나 줄었고 기계·전기전자(-7.4%)와 석유·화학(-6.4%)도 낙폭이 컸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2% 줄었고 중소기업은 3.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수익성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7%로 작년 동기와 같았다. 기업들이 물건 1천원 어치를 팔아 57원을 벌었다는 뜻이다.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9%로 비제조업(5.5%)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이 10.9% 뛰었고 석유·화학도 7.6% 늘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주택매매 비수기 진입

11월 각각 3.7%·4.1% 감소…전월세 거래도 줄어

가을 이사철 등으로 전월 큰 폭으로 증가했던 광주·전남지역의 11월 주택매매 거래량과 전월세거래량이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6년 11월 전국 주택매매·전월세거래량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택매매거래량은 3087건으로 전월 3750건, 전년동월 3206건보다 각각 3.7%, 9.2% 감소했다.

광주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 9월 2749건에서 10월 3206건으로 16.6%로 증가했으나 한달 만에 3087건으로 감소했다.

전남지역 1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3172건으로 전월 3307건보다 4.1% 감소했으나 전년동월 2731건에 비해서는 16.1%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 9월 추석 연휴로 인해 전년대비 감소한 후 10월 가을 이사철 등으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11월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한달 만에 감소세로 다시 바뀌었다.

11월 광주 전월세거래량은 2205건으로 전월 2299건보다 4.1% 감소했으나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했다.

전남도 1791건으로 전월 1835건보다 2.4% 감소했으나 전년동월 대비 14.5% 증가했다.

한편 전국의 1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확산, 10만2888건으로 한 달 전보다 5.3% 감소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호남통계청 통계지표 핸드북 발간

호남지방통계청(청장 문권순)은 광주·전남·전북의 주요 통계지표가 수록된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간물은 핸드북 형태로 2010~2015년까지 통계청의 KOSIS와 20여개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주요 지표와 10년 전과 비교 및 전국에 대한 호남 지역의 통계 구성비 등을 담았다.

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4개 부문(시군지표, 전국지표, 국제지표, KOSIS·MDIS 이용법)으로 구성해 권역별(광주·전남, 전북지역)로 발간했으며 시군(55개) 및 전국(86개)지표들은 10개 부문(인구, 고령, 웰빙, 고용, 교육, 경제, 안전, 환경, 농업, 복지)으로 구분해 세분화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피부에 수분 충전

1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르사트라 화장품 코너에서 이백화점 관계자가 겨울철 수분 공급을 위한 미스트 제품을 고객에게 뿌려주고 있다. 최근 겨울철 건조해진 피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급, 싸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급매 - 17억 (일시불)
- 문의 H. 010-3605-5000

남평, 최고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에서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 5분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80만원
- 전원주택, 캠핑장, 펜션, 가든, 식당, 요양원 등 모든업종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

구례,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지하1층 지상4층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61개
- 법인체 인수 가능
- 동업 운영 하실분 환영
- 리모델링 중 (4억예산)
- 매매 - 협의
- 대출 - 8억 있음
- 감정가 - 현재 15억
- 주인직매 H.010-3605-5000